일 - 제8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 심층보도

일본수산경제신문 4회에 걸쳐 연재

（第３種郵便物認可）

歓 第8回 韓日 漁港技術交流會議 日本代表團、協會訪問 迎

理事会長、坂井会長（前列②から２、３人目）をヘッドに協会内事務所に全員が集合

連載 韓国水産事情見て歩き ①

第8回日韓漁港会議

日本と同じ問題抱える韓国

時間かければ相互理解進む

日韓漁港技術交流会議は、交代で主催する。8回目の今毎年開催される漁港大会に韓国の漁港協会代表を招いたことをきっかけに、日韓の漁港関係者の技術交流、情報交換を通じた相互理解の促進を眼目に始まったもので、日韓が

6月14日から25日までの12日間、機会が重なって訪韓した。①14－16日の第8回日韓漁港技術交流会議（ソウル）と済州（チェジュ）島漁港視察②17－24日の蔚山（ウルサン）IWCーである。報道による最近の対日姿勢は何かとトゲトゲしい。「歴史認識の違い」という基本的な構図のうえに、水産関係ではノリのIQ問題がとどれて、WTOのパネルに提訴された。アナゴ船の拿だ捕トラブルもあった。そんな事情も絡まえて、ソウル、済州、蔚山を回ったが、そこで見たのは、ため息が出るほど日本と同じ問題を抱える韓国の水産関係者であり、日本以上に細やかな心配りを絶やさない同盟の人々だった。（安成）

したのは全国漁港漁場協会の坂井淳会長を筆頭に、矢野照惠同会顧問、水産庁漁港漁場部から中村隆防災漁村課課長補佐、宮地健司海外水産主末専門官、中山哲巖水産総合研究センター水理研究室長、民間から屋野昭雄漁港漁場技術研究所理事長、大塚浩一同研究所調査役、一色興夫水産土木建設技術センター常務、福屋正嗣センク21社長、山本正昭同社技師長、山元好子鹿児島県漁港漁場協会書記、渡辺英毅全国漁港漁場協会総務部長と、本紙から安成梗子の総勢13人が参加した。

일본의 유명 수산전문 일간지 '수산경제신문'이 한국어항협회 주최로 지난 6월 15일 개최된 '한 · 일 어항기술교류회의'를 특집으로 심도있게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야스나리 나기꼬 일본수산경제신문 사장이 직접 집필한 이번 특집은 '한국수산사정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총4회에 걸쳐 연제되었다.

이 특집기사에서는 한국어항협회 현황과 어항기술교류회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수산 현실 등을 여성적 필체로 꼼꼼하게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회에서는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며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의 소개와 함께 현재 한·일 양국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2회에서는 한국어항협회의 조직, 규모, 체계 등과 새로 제정된 어촌·어항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정통 수산행정관료 출신인 배평암 한국어항협회 회장의 이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또 일본과 한국의 행정 체계 차이(농림수산성과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3회에서는 제8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에서 발표문과 질의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수산의 입장에서 한국 현황과 비교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어촌관광활성화의 문제점, 100사 100촌 자매결연 사업, 24개 어촌관광단지 선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4회에서 야스나리 사장은 "한·일 교류, 상호이해는 잡담 중에서 이뤄지기 시작한다"며 양국 민간단체인 한국어항협회와 일본전국어항어장협회가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하고 있는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를 높이 평가했다.

협회, 보령시 침체어망수거 용역사업 추진

8,800ha, 205톤 수거 예정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7월 25일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오탁서, 용섬, 황죽도 주변 수역에 대한 침체어망 수거사업에 들어갔다.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보령시와 계약을 체결, 오는 11월 21일 준공을 목표로 침체어망 인양, 침체어망 해상운반, 침체어망 육상하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 처리 물량은 오락서 지선 3,300ha에서 71톤, 용섬지선 3,700ha에서 69톤, 황죽도 지선 1,800ha에서 65톤 등 총 8,800ha에서 205톤을 인양할 계획이다.

침체어망 수거사업은 해양 오염의 심각한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어업폐기물을 수거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적인 어업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조업활동 보장을 통한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협회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어구분쟁 등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민원발생 시 적정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책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보령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크린오션호 '바다사랑 실천의 날' 참가

지난 7월 15일 한국어항협회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 크린오션호는 '바다사랑 실천의 날'을 맞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주관하는 '바닷가대청소' 행사에 참가했다.

'바다사랑 실천의 날'은 제10회 '바다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21일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수산부가 선포한 범국민실천운동으로 매월 셋째주 금요일로 지정되어 해양정화작업을 실천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크린오션호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으로 행사에 참여, 인천남항 수역의 부유물 1.5톤을 수거해 깨끗한 바다 가꾸기를 실천하는 한국어항협회의 위상을 높였다.